

목어

산사의 새벽 풍경



정각 4시, 도량석 목탁소리가 숲속의 나무사이를 비집고 멀리멀리 번져 나간다. 드넓은 새벽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맑은 눈을 앓다뒹 반짝이고 있다. 별들과 하나하나 눈을 맞춰보지만 모두 하이라이기엔 어렵다.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작게 여겨질 때도 드물다.

어느 별에서 누군가 이곳을 바라다 보고 있는가. 소리없이 말을 걸어본다. "목탁소리가 거기까지 들리나?" 대답이 와도 들을 수가 모자란다.

이윽고 법당에 올라 종명치를 잡는다. "원차 종성변법계..." 목소리 들기다듬어 구성지계 염불을 한다. 자신이 들기에 좋은 목소리라는 시방 법계에도 생기를 돌출듯 싶어 정성을 다한다.

다음은 대중 칠 차례. "대영--, 대영--" 여러 상념들이 번뇌를 안고 뇌리를 서성인다. 종소리 계속될수록 상념들은 사라지고 종소리만 남는다. 종소리도 안들리고 종치는 사람도 없는 경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애타가 그것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예불을 올리고 나면 바로 기도도 이어진다. 정근때도 예외없이 생각의 풍량이 있다. 풍량이 심할수록 기도는 더 간절해진다. 얼마가 지났을까. 정근이 매우 빨라질 즈음 축원을 마지막으로 기도는 끝이 난다.

법당을 나서면 이미 아침이 환하게 열려 있다. 숲 사이로 멀리 파아란 바다가 호수처럼 길다랗게 퍼졌다. 과일껍질을 내다버린 웅덩이가 가보니 어젯밤에도 어김없이 산돼지가 밭잡을 자했다. 산사로 오르는 길목에는 고라니가 태어난지 얼마 안된 새끼 두마리를 데리고 한가히 노닐고 토기와 다람쥐도 아슬슬 한다.

방에 돌아와 잠시 선정에 든다. 잔잔한 행복감이 몸과 마음을 달린다. 계곡물에 젖은 몸을 씻고 나서는 읽다 만 책을 펴다. 며칠전 수필가 평탄자선생이 보내온 '사유의 풀'을 읽다가 한 생각이 스치면 위의 여백에 짧은 낙서를 남기고 책장을 다시 넘긴다. 아침공양 목탁소리가 독서심재를 시험할 때까지.

도수 (정업도량회주·본지 논설위원)

출-재가 '폭력 근절' 한마음

교단내 '비폭력 문화정착' 확산

“'중정 유지' '중법 수호' 명분 반감”
“승가 화합 가풍 대사회 모범 보일 때”

조계종 중앙신도회, 포교사단, 참여불교재가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등 18개 불교단체들이 지난 7월 24일 서울호텔에서 비폭력 문화정착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한데 이어 조계종 총무원이 17일 입재식을 가진 '비폭력 평화실현을 위한 불교인 참회정진'에 동참한 것은 출가대중이 처음으로 재가자들과 함께 교단 내 폭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데 의미가 있다.

총무원이 "원시적 완력과 토론을 통한 공의수렴 및 의사결정의 절차를 무시하는 풍토를 일변시키고, 교단차원에서 사회적 폭력과 중오심의 극복을 위한 문화적 기풍을 선도해 갈 것"을 출가대중에 촉구한 재가자의 요구를 사심 없이 받아들인 것은 출-재가의 위상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한국불교에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총무원의 이번 참회동참은 해인사 대불문제

로 촉발된 폭력사건과 실상사 스님들의 목숨을 건 21일간의 '폭력근절 참회단식'이 여론의 이슈가 되면서 종단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최근 몇 년간의 잇따른 종단 분규로 실의에 빠진 종도와 국민들에게 다시는 종단의 고질적 병폐인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것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생명평화의 종교인 불교를 이 땅에 꽃피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간절한 염원을 보여준 일이었다.

하지만 총무원의 참회정진 동참은 해인사의 폭력사태에만 초점이

맞춰져 "더 이상 한국불교사에서 물리적 언어적인 어떠한 폭력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인 반성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해방 이후 일제식민지 잔재의 청산과 불교정화운동, 최근 종단개혁과 쇄신운동에 이르기까지 평화와 개혁의 과정이 역력히 진행된 까닭에 인내하는 토론과 대중적 공의에 수순하는 교단 분연의 수행풍토가 쇠퇴한 반면, 폭력이 '중정 유지' 또는 '중법 수호' 등의 명분 아래 합리화 되었던 사실에 대한 교리적인 평가와 역사인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총무원과 18개 단체들이 교단차원에서 사회적 폭력과 중오심을 치유하기 위한 문화적 기풍을 선도함은 물론 우리 사회, 나아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지비한 폭력과 전쟁의 씨앗을 제거하는 생명평화운동으로의 회향을 강력하게 발원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태고종의 분규가 폭력사태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단 지도부의 단호한 '폭력 반대' 의지표명과 중앙종회 차원의 논의 및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출-재가 합동 참회정진이 불교본연의 비폭력 평화주의를 회복하는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일회성의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종단 전체 스님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재가자들의 전폭적인 성원이 필수적이라는 게 참회정진 동참자들의 시각이다.

김재경 기자 jkim@buddhapia.com



◇중앙승가대 안암학사 전경.

승가대 안암학사 활용 수익사업 쪽 '무게 중심'

이달내 결정... 학교측 반발

수익사업이나, 아니면 중앙승가대 대학원이나 종단의 연구 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하느냐를 놓고 지루한 논란을 벌여왔던 안암학사 활용문제가 수익사업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안암학사 활용에 대한 결정권을 학교법인 이사장(정대스님)에게 이양한 이전대책위의 결정은 정대스님이 수익사업으로 기울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입대' 방식으로서의 활용으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전대책위의 이번 결정은 떠넘기기의 성격이 없는 것도 아니다. 안암학사 활용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정대스님은 이전대책위에 수익사업 쪽으로 결정을 요구해 왔으나, 이전대책위는 학교와 동문, 종단의 입장이 맞물려 있는 미묘한 사안임을 감안해 자체적인 결정 보다는 정대스님의 '하명'을 기대했다. 하지만 정대스님 역시 지금까지 이전대책위에 결정을 떠넘기면서 상황을 주시해 온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전대책위의 이번 결정은 정대스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전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부담스럽기는 하겠지만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교계 여론이 높은 만큼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남은 문제는 그동안 수익사업을 반대해왔던 학교 측과 총동문화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당초 대학원 건립을 주장했던 학교 측은 이전대책위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중앙승가대의 한 관계자는 "이 달 안으로 교수와 학생, 동문들이 학교의 제반 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참아주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전대책위에 결정을 유보해 달라고 몇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정대스님에게 재량권을 이양함으로써 수익사업 쪽으로 결정 날 공산이 크며, 그렇게 되면 아마도 교수나 동문, 학생들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경내지 매장문화재 발굴 사찰, 소유권 신청 '필수'

절차 몰라 국가 귀속 다반사

매장문화재 가운데 사찰 경내지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유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매장문화재는 민법상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화재보호법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자가 밝혀진 경우 소유자가 돌려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찰이나 발굴기관에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몰라 사찰소유 문화재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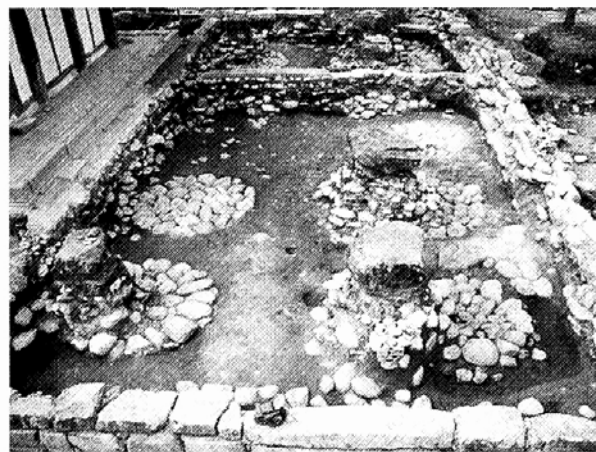
전북에 있는 한 사찰은 국보로 지정된 사찰소장 문화재의 주변정비 사업을 위해 99년 발굴기관에 의뢰, 주변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했다. 시굴 결과 신상상을 비롯한 탑 부재와 토기 등이 출토됐다. 하지만 매장문화재 국가귀속 원칙에 따라 출토된 문화재는 모두 발굴기관에서 위탁 보관하고 있다.

최근에야 매장문화재는 국가 귀속이 원칙이긴 하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 그 소유자에게 문화재를

돌려줘야 하는 규정이 있음을 안 사찰측에서는 발굴기관에 문의했으나 돌려받을 길은 막막하기만 하다. 문화재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굴되면 해당 경찰서에서 유실물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있고, 공고 후 30일 이내에 소유권 주장을 해야 하는 법규정에 따라 돌려받기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절 관계자는 "발굴기관은 물론 어디서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는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굴을 담당했던 발굴기관의 관계자는 "국가에 귀속되는 절차에 대해서 사찰측이 설명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경찰서 공고기간 내에 소유권 주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발굴기관의 한 관계자는 "매장문화재 소유권 문제는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최근에는



◇사찰 경내지에서 발굴된 유물의 경우 사찰 소유임에도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아 공고기간안에 소유권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규정이 있는 줄 알았을 정도"라며 "발굴기관에서는 소유권 문제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는 국가 귀속이 원칙이기 때문에 해당경찰서의 공고기간 동안에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 국가에 귀속시킨다"며 "지금까지 절에서 발굴된 문화재도 대부분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물론 사찰 경내지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 발굴 문화재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토지

소유권이 그대로 매장문화재 소유권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발굴 문화재가 해당 사찰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민법상 국가 소유가 원칙이나 매장문화재의 경우 일종의 특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우선 적용을 받는다"며 "국가 환속 후 문화재를 되돌려 받기는 어려우므로 사찰측에서 우선적으로 소유권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pia.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발행·편집인 : 김광삼 대표전화 02-737-8881

인쇄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일간지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소문 '마함말'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아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6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 20명 ■야간 20명 ■통신 50명	· 고등학교 및 수험능력이 있는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 본교소정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포교사 (타종단승려, 포교사도 가능) · 30세 이상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신 이력서 전형 가능
	4년	■통신 50명		
개호복지사과	2년	■통신 50명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 20명 ■야간 10명		

2. 학교연혁

1989. 7. 학교설립준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 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종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문교 재갈·중국어 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0.1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1. 2. 제 1회 졸업생 배출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용 거처)
-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취득(자격고시용 거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지도자과정 입학가능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본과입학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1년 8월 31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우선은 당일 소인 유효)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 본교 교학과: TEL 02)511-2026 ~ 7 FAX 511-2028
- 일반동경분교: TEL 055-233-1848
- 부산 분교: TEL 051-322-32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 인터넷홈페이지: WWW.samhwade.com

☎135-8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교육부 학력 인정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만 60세까지)

■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 전: 성적 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01년 8월 31일까지

■ 문의처: ☎135-8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02)511-1080 FAX: 02)511-2028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중국최고 국립한외과 대학 한의사 과정 학생모집

1. 모집학과

학 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외과	5년	·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음 · 전문대,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 건강 진단서 1통 · 외국인 유학생 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3매
중약학과	5년	

2. 학교 소개

- ▶ 중국 최고 국립 한외과대학
-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 부속병원 5개, 제약공장 3개, 교육병원 12개 제약연구소등 완비
- ▶ 외국인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주소: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화: 25-6798171 팩스: 25-6798168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한국 상담 안내처
TEL: 02-511-2026~8, 1080

남경중의약대학

중국남경 중의약 대학 박사과정 연수

한방미용연수

■ 대 상: 피부관리사, 전문미용인 한방미용이나 경철 마사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주요연수 내용: 머리경철마사지 기공미용, 추나미용, 한방팩, 한방 다이어트, 식이요법 및 응용 등

침·기공 연수

■ 대 상: 한의사, 한약사, 스님, 침,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 주요연수 내용: 당뇨병·중풍·비만·좌골신경통 및 관절치료 등의 침치료, 맥진법, 기공 등

■ 기 간: 9월 6일 ~ 12일 (6박 7일)

■ 연 수 후: 국립 남경중의약대학 고급과정 수료증 수여 (高級課程 進修 證明書)

■ 인 원: 10명 선착순

■ 출 발 일: 2001년 9월 6일 예정

■ 문 의 처: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 전 화: 02)511-2026~8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